

# 세대·분야별 맞춤형 정책으로 인구 유입 효과 노린다



익산시가 지역 시민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도시로 도약한다.



특히 청년부터 어르신 경제부터 주거, 일자리 복지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 유입 효과까지 노린다.



**▲익산만의 특별한 경제 혜택 '다리로움'**  
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 다리로움 정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전국 최대인 20%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화폐 다리로움은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누적 가입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하며 경제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지역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인구정책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다리로움과 연계해 출시된 택시 호출앱 '다리로움 택시'는 기사들에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자는 요금 결제 시 10%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학 지역 기관과 연계한 다리로움 취업박람회,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지원군 다리로움 나눔기부 공간과 밤차, 4대 종교체협 다리로움 익산여행 등 새롭고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어갈 방침이다.

**▲숲세권 아파트·민경강 수변도시로 명품 주거환경 조성**  
시는 지역 곳곳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5곳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공원과 함께 명품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며 순차적으로 약 7,500세대가 공급된다. 녹지공간과 도서관, 문화센터 등 시민들을 위한 휴양, 편의시설이 조성돼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부권 민경강 수변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곳은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과 의료와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 인프라가 포함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인근 파크골프장, 민경강 문화관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더해져 일과 주거, 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루어 살기 좋은 익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시는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오는 2026

**다리로움·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 촉촉한 출산·보육체계 구축 박차 전입 장려금 등 시민 체감 혜택도**

년까지 4,900세대를 특별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1,300세대는 주변 임대 시세의 70%~85%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어 주택 임대보증금과 구입자금 대출 이자 3%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일자리 창출 초집중**  
시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리로움 경제도시를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립된 '익산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월 성공취업 다리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개관 예정인 '신중년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신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창업과 경력개발 교육, 커뮤니티 지원,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통해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노린다.  
청년과 신중년에 이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올해는 전년 대비 422명 늘어난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임산부터 출산 돌봄까지 촉촉한 출산·보육 체계 구축**  
임산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도내 최초로 한방 난임 치료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임산부 건강관리비(40만원), 출산장려금(최대 1,000만원), 산후건강관리(최대 20만원), 출생아 육아용품, 다둥이 사랑 지원금(월 10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

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마련된 62개소의 돌봄 시설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촉촉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익산으로 오면 혜택이?**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  
주소 전입 학생과 세대, 인구늘리기 유공 시민에 전입 장려금을,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을 위한 열차 운임비의 50% 등을 지원한다. 전입한 대학생은 최대 100만원, 고등학생은 최대 80만원을, 타 지역민을 익산시로 전입 유도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로 시민들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주세요~

##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 또는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지역특산품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답례품 : 돼지고기, 홍삼, 곡류, 수삼(인삼), 사과, 진안홍삼스파 이용권, 승마체험 이용권,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34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협력팀 063-430-2830